

## 고성국 "이진숙 컷오프...국회 포진 시키려는 포석"

등록 2026.03.23 12:55:52 | 수정 2026.03.23 14:32:23



[서울=뉴스시스]보수 유튜버 고성국씨. (사진 = 고성국TV 캡처)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김건민 인턴 기자 =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두고,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을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.

최근 대구를 방문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온 고씨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'고성국TV' 라이브 방송에서 "이정현 공관위원장, 장동혁 지도부 결정의 속사정을 알 수 없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 컷오프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 어렵다"고 말했다.

다만 그는 "밤새워 생각해보니 실마리는 단 하나, 최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'국회와 국가 전반에 걸친 쓰임새'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"고 했다.

그러면서 "이 전 위원장의 경우 대구시장보다는 더 크게,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포진시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지도부에게 있는 건 아닌가 짐작한다"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.

앞서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된 데 대해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"지난달과 3월 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"며 "공관위가 6·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오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대구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청한다"고 밝혔다.